
임란기(壬亂期) 부산지역 전란가사(戰亂歌辭)의 의미 고찰

황 병 익 /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目 次

- | | |
|---------------------------------|-----------------------|
| I. 들어가기 | 2. 내재된 근심과 회한, 분노와 울분 |
| II. 임란기 부산지역 전란가사의 창작배경 | 3. 위기에 더욱 빛나는 절개와 충정 |
| 1. 「태평사」의 창작배경 | 4. 굳은 결의와 불타는 전의 |
| 2. 「재일본장가」의 창작배경 | 5. 고향과 태평시절에 대한 그리움 |
| 3. 「선상탄」 창작배경 | |
| III. 「태평사」 「재일본장가」 「선상탄」의 의미 분석 | IV. 나오기 |
| 1. 감도는 전운과 전란의 참상 |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

I. 들어가기

부산과 그 인근 지역은 삼국시대 이래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였다. 그 결과 임진·정유왜란 때는 적의 진지가 구축되어 전란의 처음부터 끝까지 장기간에 걸쳐 유린되었고, 그 과정에서 「태평사(太平詞)」 「재일본장가(在日本長歌)」 「선상탄(船上嘆)」 등의 가사 작품이 지어졌다. 임진왜란 당시 부산진·동래·서생포·울산·양산·김해 등지는 바닷길과 육지 길로 통하며 치열한 격전을 벌였기에 이들 지역과 연관된 가사 작품을 편의상 ‘부산지역 전란가사(戰亂歌辭)’로 묶어

논의하고자 한다.

그동안 「태평사」와 「선상탄」은 박인로의 가사 작품을 다루면서 줄곧 분석·논의하고,¹⁾ 「재일본장가」는 간헐적으로 다루어지는²⁾ 가운데 많은 진척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는 「태평사」와 「선상탄」을 장부호기(丈夫豪氣) 가사로, 「재일본장가」를 연주충군(戀主忠君) 중 우국계(憂國系) 가사로 분류하여 논의해왔고, 임진왜란 시기, 부산지역의 전황(戰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들 전란가사에 국한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전란시가의 개념과 연구 범주도 설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이 작품들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란을 전후하여 임진왜란·정유재란의 치열한 전투 상황이나 전쟁 대비, 포로의 삶이나 귀환, 전쟁 당시의 피폐한 사회상 등 전쟁을 소재·제재로 하여 그 긴박함과 긴장감을 형상화한 작품을 전란가사로 설정하고, 작품의 구절과 구조 등을 역사적이고 실증적인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임란 전쟁가사의 시기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쳐, 포로들이 일본에서 자력으로 탈출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조선과 일본의 국교 재개에 의해 순조로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1592년~1607년경까지 지어진 가사작품”들로 설정한다. 전란가사를 치열한 전투 장면, 끝

1) 朴景義, 1966, 『松江 蘆溪 孤山の 詩歌文學』, 현암사 ; 李相寶, 1978, 蘆溪詩歌 연구, 二友出版社 ; 具壽榮, 1986, 蘆溪 박인로의 시가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 최웅, 1992, 船上嘆 연구,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 정재호, 1992, 임진왜란과 국문시가,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 黃忠基, 1994, 『蘆溪 朴仁老 研究』, 國學資料院 ; 고순희, 1996, 「임란 이후 17세기 우국가사의 전개와 성격」, 『韓國古典研究』2, 韓國古典研究學會 등에서 개별적 연구가 깊어지고, 정재호, 박인로론, 1977, 『한국문학작가론』 I, 형설출판사 ; 이상보, 1991, 박인로론, 『한국문학작가론』, 현대문학사 등에서 작가론적 진척이 이루어져 있다.

2) 徐元燮, 1995, 『韓國歌辭의 文學的 研究』, 螢雪出版社.

려간 포로의 소회, 전쟁 전후의 불안과 긴장 등 역사적 관점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포로 실기·전(傳)문학 등에 집중된 임란시기 문학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부산과 인근 지역의 가사 문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려 한다.

II. 임란기 부산지역 전란가사의 창작배경

1. 「태평사」의 창작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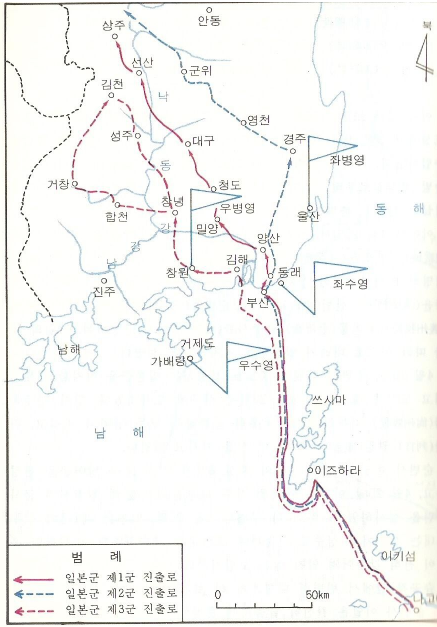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박인로는 의분을 느껴 붓을 던지고 의병에 가담하니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은 무략(武略)도 있다”고 했다. 무술년(戊戌年, 1598년) 정유재란 당시, 강좌절도사(江左節度使) 성윤문(成允文)이 공의 명성을 듣고 좌막(佐幕)으로 붙렸는데, 공이 매양 적의 정황을 논하면 윤문은 무릎을 치며 칭찬하였다.³⁾ 이해 늦겨울 부산에 주둔하던 왜적이 밤을 틈타 도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윤문은 곧 군대를 인솔하여 부산으로 달려가 10여 일을 머문 후에 본영으로 돌아와 이튿날 공에게 「태평사」를 짓게 하였다.⁴⁾

1596년에 성윤문을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로 삼아 울산과 양산, 기장 등지의 전세를 살피게 했고,⁵⁾ 박인로는 그의 막하(幕下)에

3) "壬辰 慷慨投筆 出入戎馬間 人皆曰 此子又有武略耶 戊戌 江左節度使 成允文 聞公名 檄召佐幕 公每論賊情 允文擊節稱善"(鄭葵陽, (蘆溪)行狀, 『蘆溪集』 卷2 ; 『韓國文集叢刊』65, 234쪽).

4) "戊戌季冬 釜山屯賊 乘夜奔潰 時公佐左兵使成允文幕 兵使聞卽率軍馳到釜山 留十餘日後 還到本營 明日 使之作此歌"(朴仁老, 太平詞 附記, 『위의 책』, 244쪽).

5) 『선조실록』권80, 선조 29년(1596) 9월 14일 ; 『선조실록』권94, 선조 30년(1597) 11월 28일 ; 『선조실록』권97, 선조 31년(1598) 2월 13일.



<그림 1> 임란시기 조선의 병영과
일본군 진출로

서 일종의 보좌관 역할을 맡았다. “이달 21일 왜선 14척이 부산포 맞은편 가마리(加麻里)에 나아와 정박하였는데”, “경상좌병사 성윤문이 언양 전투에 대해 치계하다.”, “현재 서생포(西生浦)의 적들은 소굴을 불사르고 철수해 돌아가려 하고 있으며 부산과 동래의 적들도 소굴을 불사르고 서생포를 향하고 있다”⁶⁾는 치계에 따르면 경상좌병사는 부산·울산·양산·언양·서생포·기장 등의 전세를 두루 살펴야 했다.

(1) 태종 15년에 병마절제사영(兵馬節制使營)을 경주 동남 20여리에 설치하였다가 17년에 계변성(戒邊城) 북쪽 옛 군치로 옮겨 설치하였다. 선조 37년에 내상면, 곧 옛날 영을 설치하였던 곳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석성(石城)으로 둘레가 9,316척이고 우물 7개, 도랑 2개, 못이 있다.⁷⁾

(2) 울산병마절도사(蔚山兵馬節度使)의 본영(本營)은 석축(石築)으로 영내 우물이 7, 도랑 2, 호지(壕池)가 3이다. 본영이 경주 동면 토을마리(吐乙磨里)에 있었으나 본부(本府)의 성으로 옮겼

6) 『선조실록』권87, 선조 30년(1597) 4월 2일)/『선조실록』권103, 선조 31년 8월 20일.

7) 국역 『新增東國輿地勝覽』III, 민족문화추진회, 1969,蔚山郡.

다. 태종 17년 우도(右道) 창원부의 합포(合浦) 내상(內廂)에 복속 시켰다가 세종 8년 좌도병영(左道兵營)을 다시 세우고 업무를 겸했다. 선조 37년에 내상을 본부에 특별히 세웠다.⁸⁾

(3)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 이천근(李天根)이 장계하기를, “신의 병영은 울산의 바닷가 들판 가운데에 있는데, 외로운 성과 낮은 성첩은 결코 믿을 만한 험요한 곳이 아니며, 군교는 흩어져 있어 평소에도 머물러 기대할 만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급한 일이 생겨도 속수무책입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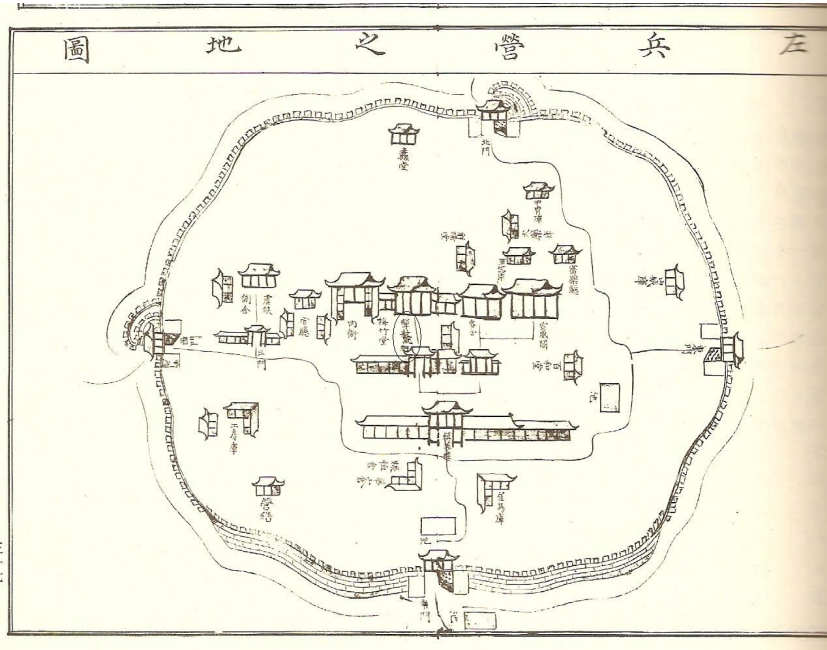
위의 기록을 보면, 좌병영(左兵營)은 몇 번 옮겨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1)·(2)), 강좌절도사(江左節度使)(『노계집(蘆溪集)』)은 모두 경상좌병사를 지칭한다. 자료 (3)이나 “1417년 정유(丁酉)에 경주부 동면 토을마리로 옮겨졌다. 후에 울주성으로 옮겨 1426년 병오(丙午)에 우도(右道)에 속하게 했다.”하고 “둘레가 9,316척 높이 12척”¹⁰⁾이라 한 것이 울산 병영성을 설명한 (1)과 일치한다.¹¹⁾ 그러므로 박인로가 “밤에 왜적들이 도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윤문 군대가 부산으로 달려가 10여 일을 머물다 본영으로 돌아왔다.” 한 본영은 바로 울산의 경상좌병영(그림 1, 그림 2)을 지칭한다.

8) “蔚山兵馬節度使營石築 內有井七渠二豪池三 本營在慶州東面吐乙磨里 移於本府城 太宗十七年合屬於右道昌原府合浦內廂 世宗八年左道兵營復立兼本府事 宣祖三十七年 別設營於本府內廂”(『增補 文獻備考』卷27, 輿地考).

9) 『숙종실록』권36, 숙종 28년(1702) 4월 24일.

10) “永樂十五年 丁酉 移於同(慶州)府 東面吐乙磨里 其後又移於蔚州城 宣德元年 丙午 合屬於右道,” “石築周圍 九千三百十六尺 高十二尺”(國史編纂委員會, 『輿地圖書』慶尙道 左兵營, 探求堂, 1973, 318쪽).

11) 이종문은 「태평사」의 창작 공간을 “경상좌병사의 본영이 위치하고 있었던 곳은 현재 사적 320호로 지정된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소재의 울산소재 병營城”으로 고증하고 있다.(李鍾文, 2008, 「蘆溪 朴仁老 文學의 創作 空間과 遺蹟 關聯 몇 가지 摸索」, 『大東漢文學』29, 大東漢文學會, 197~202쪽).



<그림 2> 울산 경상좌병영 지도(『여지도서』하)

(4) 무술년(1598년) 11월 19일, 도산(島山)의 왜적 괴수 청정(清正)이 먼저 군사를 철수하여 바다를 건너가매 변방이 씻은 듯이 깨끗해졌다.¹²⁾

(5) 경상 좌병사 성윤문이 치계하기를,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관백(關白)이 7월 17일 병으로 죽자, …(중략)… 지금 도산의 왜적이 집을 부수어 밤을 지어 먹고 날마다 집을 꾸리고 있는데, 군량과 전마의 3분의 1은 이미 일본

12) “時島山賊酋清正 先以撤兵渡海 邊徼掃清”(趙慶男 撰, 『亂中雜錄』卷3, 戊戌年 11월 19일).

으로 실어갔으며, 잡곡 창고는 수송해 가지 못하고 흙으로 문을 발랐다.’ 했습니다.”¹³⁾

위의 (4)·(5)는 1598년 11월 20일 경에 일본군이 철군 명령에 따라 울산 도산성(島山城)에서 철수하는 전황을 그리고 있다.¹⁴⁾ 이곳은 이전에 조명군(朝明軍)이 도산성에 진을 친 일본군을 유인하려고 격전을 벌이다 물러난 지역이다.

(6) 경상좌병사 성윤문이 치계하였다. “정탐인(偵探人)의 말에 ‘부산의 왜적은 선발대가 이미 바다를 건너갔고 남은 왜적은 50~60명뿐이다.’고 합니다.”

(7)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경상좌병사 성윤문의 장계를 보니, 부산의 왜적도 이미 철수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면(海面)이 말끔해지고 황제의 위엄이 진동하여 사직이 안정된 셈이니 종묘에 고하고 진하(陳賀)하는 등의 일을 해사(該司)로 하여금 차례로 거행케 하고, 군문과 경리의 아문에 백관·유생·시민이 모두 치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은사도 차출하여 모든 일을 미리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¹⁵⁾

위의 (7)에서 보듯이 성윤문은 1598년 11월 29일에 왜적이 모두 철수¹⁶⁾한 뒤 부산 앞바다가 평화를 되찾았다는 장계를 올리고, 부산에서 10일을 머문 후에 울산에 있는 본영으로 돌아갔다.

13) 『선조실록』권106, 선조 31년(1598) 11월 21일.

14) 『韓民族戰爭通史』Ⅲ -朝鮮時代 前篇, 國防軍史研究所, 1996, 253~255쪽 참조.

15) 『선조실록』권106, 선조 31년(1598) 11월 28일(상) ; 『선조실록』권106, 선조 31년(1598) 11월 29일(하).

16) “11월 24일 加藤清正 등, 25일 毛利吉成 등, 26일에 小西行長 등이 釜山 鎭을 떠나 對馬島와 壹岐를 거쳐 博多港으로 돌아갔다.”(李炯錫, 1976, 『壬辰倭亂史』中, 壬辰倭亂史刊行委員會, 1143쪽).

성윤문은 그해 12월 25일에 제주목사 발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성윤문의 명을 받아 박인로가 「태평사」를 지은 것은 1598년 12월 10일에서 25일 경이 된다.¹⁷⁾



<그림 3> 자성대와 부산 앞바다

부산은 불행하게도 임진·정유왜란의 7년여를 적의 치하에 있으면서 적의 교두보가 되었다. 일본군이 부산에 축조한 성만도 증산성(甌山城)·자성대성(子城臺城)(그림 3)·절영도성(絶影島城)·구포왜성(龜浦倭城)·기장왜성(機長倭城)·죽도왜성(竹島倭城)

17) 黃忠基, 1994, 앞의 책, 66~67쪽.

등 매우 많다. 1593년 6월 진주성 2차 공격 때는 6,990명, 정유재란 초기에는 고바야가와 병력 10,390명이 상륙지 부산진성을 본성으로 삼고, 동래 등지에 지성(支城)을 두어 일대를 점령하고 있었다.¹⁸⁾ 풍신수길의 죽자 일본은 그 사실을 비밀에 붙인 채 두 차례(8월 28일, 9월 5일)에 걸쳐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군 장수들에게 화의를 청하고 철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¹⁹⁾ 일본은 다시 사자 덕영(德永)과 궁목(宮木)을 보내 사천(泗川)의 도진 의홍(島津義弘), 왜교(倭橋)의 소서행장(小西行長), 울산의 가등청정에게 철수 명령을 전했다. 이에 가등청정 이하 동부의 모든 장수들이 명령대로 울산 서생포, 양산, 죽도의 성을 불사르고 철수를 시작하여 1598년 11월 말 부산진에 집결하여 일본으로 되돌아감으로써²⁰⁾ 부산 일대, 나아가 조선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태평사」는 울산 도산 등지에서의 전투가 끝나고, 각지의 왜적들이 각지의 진지를 버리고 부산진에 결집하여 일본으로 돌아간 것을 최종 확인하고 울산병영으로 돌아가서 부산을 거점으로 한 동남해안 일대에 평화가 찾아온 기쁨을 노래한 것이다.²¹⁾

「태평사」의 구절 중에 “투병식과(投兵息戈)하고 세류영(細柳營) 도라들 제”를 통해서 이 작품은 왜적 잔당들이 달아난 것을 확인하고 병영으로 돌아와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세류

18) 김강식, 1998, 조선전기의 대일교섭과 임진왜란, 『부산의 역사와 문화』, 부산대학교출판부, 120쪽.

19) 李炯錫, 1976, 『壬辰戰亂史』(中),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965쪽.

20) 李炯錫, 『위의 책』 1139~1140쪽.

21) 詩歌碑를 세워 전란 당시의 상황을 되새기는 문화 사업은 자체로 의미가 있다. 박인로가 「태평사」를 울산 병영에서 지었다 하나 創作 動因은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동남해안, 나아가 조선이 태평을 회복한 때문이므로 부산 수변공원에 놓인 시가비의 위치를 굳이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다만 ‘수군절도사 성윤문’·‘좌수영’은 ‘경상좌병사 성윤문’·‘좌병영’으로 고쳐 「태평사」 창작의 배경 설명은 바로잡아야 하겠다.

영'은 한(漢)나라 장수 주아부(周亞夫)가 “군중에서는 단지 나의 명령만 듣고 천자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듣지 말라.” 하여 실제로 황제가 陝西省 군영에 들어갈 수 없었던 고사를 인용한²²⁾ 것이다. “성윤문은 사졸을 애호하지 않고 형장(刑杖)을 혹독히 하여 어떤 때는 도망하는 병졸을 하루에 10명까지 죽이니 인심이 이반(離叛)하여 조석도 보장할 수 없고, 군량을 받을 때 따로 큰 말(斗)을 만들어 함부로 받아들여서 원근에 원망이 자자하니 그의 포악하고 탐욕스러움이 극히 놀랍습니다. 과직을 명하소서.”²³⁾라 하고, “좌병사 성윤문은 임기가 끝나 가는데 청백하다는 명성은 있으나 성품이 사납고 형벌이 과중하여 인심이 따르지 않으니 유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²⁴⁾한 것을 보면 성윤문의 경상좌병영을 엄격한 규율을 가진 ‘세류영’에 비유한 것도 과언은 아닌 듯하다.

2. 「재일본장가」의 창작 배경

「재일본장가」를 지은 송담(松潭) 백수회(白受繪)는 양산군 동 20리 사배아리(沙背兒里)(그림4)에서 태어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19세), 산방에서 독서하고 있다가 졸지에 왜구에게 끌려 일본으로 잡혀갔다.

(1) 왜적이 선생의 범상치 않은 풍골을 보고 겁박하여 굴복시키려 하였으나 도리어 선생이 계속 꾸짖으므로 왜적이 크게 노해 뽕뽕 묶어 킁킁한 방 안에 가뒀다. 3개월 동안 굴복하지 않으니 적이 묶은 것을 풀고 회유하고 협박하였다. 하지만 도리어 왼쪽 팔뚝에 “차라리 조선의 귀신이 될지언정 개와 양 같은 천한

22) 『資治通鑑』卷57, 絳侯 周勃 世家.

23) 『선조실록』권48, 선조 27년(1594) 2월 19일.

24) 『선조실록』권107, 선조 31년(1598) 12월 24일.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寧爲李氏鬼 不作犬羊臣)”라는 글을 쏘아 새기자 왜적이 노하여 가마의 끓는 물에다 삶으려 하니 선생은 태연히 옷을 벗고 가마를 향해 가면서 “이것은 내가 원하던 바라”하니 적이 바빠 나와 도리어 말리면서 “이분은 참으로 의사(義士)로다. 어찌 명분 없이 죽이리오.”라고 말했다. 모두가 그 지절(志節)에 감탄하고 되레 존경하며 보호하였다.²⁵⁾

『조선왕조실록』에도 “왜적들이 항복시키고자 가마술에 삶겠다고 협박하였으나 끝내 두려워하지 않자, 왜인이 의롭게 여겨 석방하여 돌려보냈다.” 전한다. 이후 경상감사 민시중(閔蓍重)이 절개를 세운 백수회의 일을 진달하자 예조가 정문(旌門)을 세우고 증직하였다.²⁶⁾

(2) 경자년(1600) 5월 19일 부산에 도착하자 이 일이 조정에 보고되었고 임금께서 부르시어 서울에 이르렀다. 임금께서 왜국 사정을 하문하시기에 이 글을 써서 바쳤다. 임금께서 차비문(差備門) 밖에서 술상을 내리시고 또 말을 주어 돌아가 내 아버지를 보게 하셨으니 때는 8월 초였다.²⁷⁾

(2)는 1597년 고향 영광에서 일본에 끌려간 강항(姜沆, 1567~1618)의 기록이다. “신이 밤을 타서 몰래 나와 임진년에 포로로 온 신계리, 임대홍 등과 함께 중국에서 파견한 사신을 찾아가 문

25) “二十年 壬辰 先生年十九 倭奴猝至 先生方讀書山房 被虜渡海 賊見先生 風骨超凡 迫令降之 先生 憤罵不絕口 賊大老 綁縛拘囚於幽室中 三月 終不屈 賊異之 解縛誘脅 先生 乃於左臂 自涅十字曰 寧爲李氏鬼 不作犬羊臣 賊 益怒 具湯鑊將烹之 先生 畧不動色 裸體趨入曰 是吾願也 有一賊酋 亟來止之曰 此眞義士也 何可無名而殺之 咸歎其志節 仍 遂愛護之”(白受繪, 1988, 松潭先生 年譜, 『松潭先生遺事集』, 松潭書院, 28쪽).

26) 『현종실록』권18, 현종 11년(1670), 경술 윤2월 9일 병신.

27) 姜沆 저, 김찬순 역, 2006, 詣承政院啓辭, 『看羊錄』, 보리, 20~21쪽(이하 『看羊錄』).

지기에게 뇌물을 주고 접견한 사실이 탄로 나자 왜놈이 신을 끌어 내 어두운 방에 묶어 두고 신계리 등도 묶어 다른 곳에 두었습니다. 왜국의 비밀을 사신에게 알려줄까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때 양산 사람



<그림 4> 백수회의 뜻을 기린 송담서원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백수회가 임진년에 포로로 와 장우위문 집에 있었는데, 해 질 녘에 신 등의 목을 베어 매달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일본 중과 함께 여러 가지로 힘써 구해내려고 하였고 사신도 거둬 타일러 신 등의 결박을 풀고 복건으로 보냈습니다.”²⁸⁾라고 했으니 백수회와 강항은 인근에 붙잡혀 있다 1600년경에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백수회가 일본에 억류된 것은 1592~1600년인데, 병신년(1596년)에 지은 시에 “고국에 계신 임금님/사신 보내시어 화친을 제안하시니,/나 같이 엽매인 자들/목을 빼고 돌아갈 날만 바라노라.”²⁹⁾가 있다. 1596년 6월 통신사 황신(黃愼)·박홍장(朴弘長)을

28) “臣乘夜潛出 與壬辰被擄人申繼李林大興等往見之 賂門者得入 差官見臣 極加矜愍 招舌人問臣被擄曲折 飯臣而語者移時守倭覺之 牽臣縛暗室中 別縛繼李等於他所 蓋意臣告其國陰事也 梁山人白受繪 自壬辰被擄在長右門家 聞倭以日暮欲轆臣等 與寺僧設機力救 差官亦再三申解 解臣等縛 還之伏見”(姜沆, 賦中封疏, 『看羊錄』).

29) “海水三千里 思歸未歸人 欲別腸先斷 相看盡濕巾 天朝聖天子 遣使主和親

파견한 일을 두고 지은 시인 듯한데, 여기엔 그나마 귀환에 대한 기대가 깔려있으니 백수회가 절망감을 담은 「재일본장가」를 지은 것은 1596년~1600년경인 듯하다.

3. 「선상탄」의 창작 배경

1605년, 나라의 남쪽 변방이 아직 근심스러우므로 박인로를 통주사(統舟師)로 뽑아 부산을 방어하도록 했고, 공이 배에 임하여 「선상탄」을 지었다.³⁰⁾ 작품 가운데 “늘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나 실식/을사(乙巳) 삼하(三夏)에 진동영(鎭東營) 느려오니”라 하였으니 선조 38년(1605년) 여름에 지어졌다.

1598년 11월 말에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에서 완전히 철수한 후, 그해 12월 전라감사 황신(黃愼)이 비변사에 쓰시마정벌을 건의하고, 이듬해 4월 경상좌병사 김응서도 같은 제안을 한다. 이에 일본 소서행장·종의지(宗義智) 등이 조선에 관계 개선을 요청(1600년 2월)하며 피랍된 조선인 300명을 송환한다. 일본의 새 실력자 덕천가강(德川家康, 도쿠가와)은 정권의 새로운 면모를 선전하고 주변국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선에 관계개선을 요청(1600년 10월)하고, 1601년 6월 하순에 쓰시마 도주 종의지를 통하여 조선인 포로 250여 명을 송환하고 강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조선은 연합군인 명과 협의해야 한다며 일단 강화를 거절했다. 일본은 이듬해 5월과 7월에도 강화를 요구하였고, 8월에 포로 230여 명을 재송환하고 국교의 재개를 간청하였다. 그

如我僣徒者 引領望歸辰 思親憂國意 欲言未能陳 今君棄我去 涕淚沾衣巾 倭奴催啓行 歸舟好渡津”(白受繪, 贈別 丙申秋, 『松潭先生遺事』).

30) “時國家 尙憂南陲 選公統舟師 赴防釜山 公臨船 作此曲”(朴仁老, 船上嘆 附記, 『蘆溪集』卷3 ; 『韓國文集叢刊』65, 248).

후에도 일본은 수차에 걸쳐서 수십 명 또는 1백 명 규모의 포로를 송환하면서 조선에 강화를 요구했다.³¹⁾ 1603년 9월, 조선도 일본과의 국교재개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고,³²⁾ 1604년 6월에 승병장 유정(惟政) 등을 교토(京都)에 파견하여 1391명이라는 많은 수의 포로들을 데려 온다. 당시 유정은 탐적사(探賊使)로 갔기 때문에 실제 피로인 모집은 전적으로 쓰시마의 노력과 협조에 의존해야할 입장이었다.³³⁾ 1607년, 조선 예조에서 일본에 “1607년에 일본에 조선사신을 파견하여 피로인을 데리고 와, 모두의 죄를 사해주고 부역을 가진 자는 역을 면제해 주고, 공사(公私)의 천민은 신분을 해방시켜 주고 원조를 완벽하게 해 주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다.”³⁴⁾는 내용의 유문(諭文)을 보내고, 이후에도 계속 통신사를 파견함으로써 양국의 협의에 따라 전쟁 포로의 귀환이 순조로워진다.

1599년 4월부터 1643년 11월까지 총 63건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다. 때론 자력으로, 때론 쓰시마 소씨 등을 매개로, 때론 조선 사절단과 함께 귀환한다. 하지만 포로 김경립(金慶立) 등 10명이 작은 배를 훔쳐 경상도 장기(長鬐)로 돌아오는 일을 필두로 한 1605년 이전의 포로 귀환은³⁵⁾ 배를 훔치거나 빼앗거나 빌리거나 사거나 직접 만들어 몰래 이루어졌다. 주인과 영주의 허락

31) 『韓民族戰爭通史』Ⅲ -朝鮮時代 前篇, 國防軍史研究所, 1996, 268쪽.

32) 李元淳, 1985, 「壬辰·丁酉倭亂時의 朝鮮俘虜奴問題」,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三英社, 645쪽.

33) 요네타니 히토시(米谷均), 2007, 사로잡힌 조선인들 -전후 조선인 포로 송환에 대하여;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센터 기획 정두화·이경순 편,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pp.91~92.

34) 1617년 5월 1일 조선국 예조유문, 사가(佐賀) 현립박물관(縣立博物館); 요네타니 히토시(米谷均), 위의 책, pp.97~98.

35) “일본은 1605년 5월에 1,400여 명의 포로를 송환하고, 1606년에 또다시 120여 명을 송환했다.”(『韓民族戰爭通史』Ⅲ 앞의 책, 268~269쪽).

을 얻지 않고 귀환을 시도하다 도중에 체포되어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당시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강화가 성립되지 않아 여전히 '전쟁 상태'였기 때문에 귀환에 여러 가지 위험이 따랐다.³⁶⁾ 「선상탄」은 이렇듯 조선과 일본에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포로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력 탈출을 시도하던 때에, 박인로가 부산 앞바다의 수군 장수로 부임해 적진을 바라보는 심정을 담은 작품이다.

III. 「태평사」「재일본장가」「선상탄」의 의미 분석

1. 감도는 전운(戰雲)과 전란의 참상

전선(戰線)에 감도는 전쟁의 여운을 묘사하고, 침략자와 치열한 접전을 펼치다 들판에 시신이 즐비한 모습을 그리고, 전쟁 포로가 되어 적국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은 전란가사의 고유한 특징이다.

(1) “도이백만(島夷百萬)이 일조(一朝)에 충돌(衝突)하야/억조경혼(億兆驚魂)이 칼 빗칠 조차 나니/평원(平原)에 사한 썰는 피두곤 노파 잇고/웅도거읍(雄都巨邑)은 시호굴(豺狐窟)이 되얏거늘”(「태평사」)

(2) “처량옥련(淒涼玉輦)이 촉중(蜀中)으로 비아드니/연진(烟塵)이 아득하야 일색(日色)이 열워져니/성천자(聖天子) 신무(神武)하샤 일노(一怒)를 크게 내야/평양(平壤) 군흉(群兇)을 일검하(一劔下)의 다 버히고/풍구남하(風驅南下)하야 해구(海口)에 더저두고/궁구(窮寇)을 몰박(勿迫)하야 몇몇 헛을 디니연고”(「태평사」)

36) 요네타니 히토시(米谷均), 앞의 책, pp.89~90.

(1)에서 “일본의 섬 오랑개 백만과 하루아침 충돌하여/수많은 혼백들 칼 빛을 따라 나니/들판에 쌓인 뼈는 산보다 높아졌고/평화롭던 마을은 왜적 소굴 돼버렸네.”라 했다. 풍신수길(豊臣秀吉, 平秀吉)은 제후들의 강력한 무력을 해외로 내보내 반대세력을 약화시키고, 해외무역의 이득을 취하고, 대륙 침략의 망상을 이루어 국내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조선을 침략했다.³⁷⁾ 『충렬사지(忠烈祠志)』에는 “풍신수길은 조선이 길을 빌려주지 않으므로 일본 제도(諸島)의 병사 20만을 징발하여 친히 이끌고 일기도(一岐島)에 이르러 평수가(平秀家) 등 36명의 장수에게 거느리게 하고 대마도주 평의지(平義智)와 평조신(平調信)·행장(行長)·현어(玄蘓) 등을 선도 삼아 전선 4,5만 척이 바다를 건너 내도하였다. 4월 13일에 새벽안개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³⁸⁾ 했으니 선발대 제1군 1만8천7백 명 7백여 척에다 일본 주둔군까지 합해도 20만 인 것을³⁹⁾ 「태평사」에서는 도이100만(島夷百萬)이라 했으니 이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에 따른 과장이다.

(2)에는 소서행장(小西行長)이 선봉에 나서 압록강을 넘어 명나라로 입성하려하니,⁴⁰⁾ 선조가 의주로 바빠 피난 가고, “명(明)나라 신종이 무용을 떨치어/평양의 왜적무리 단칼에 베 버리고/질풍처럼 남하하여 해구(海口)에 몰아두고/궁지 몰린 왜적 두고 몇 해를 기다렸나?”하여 조명 연합군이 반격하는 모습을 반영하였다.

37) 李章熙, 1995, 壬辰倭亂,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84~797쪽.

38) “平秀吉 以我國不許借道 遂發諸島兵二十萬 親領至一岐島 以平秀家等 三十六將 分領 以馬島主 平義智 及平調信 行長 玄蘓爲導 船四五萬艘 蔽海而來 是月十三日 乘曉霧 渡海”(『忠烈祠志』卷序, 安樂書院, 1978).

39) “합계 병력은 13만 명인데, 毛利輝元의 군사까지 합하면 16만이다.” (李炯錫, 1976, 『壬辰戰亂史』上,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45~146쪽).

40) 李炯錫, 1976, 위의 책 下, 1634쪽.

1592년 4월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복상을 거듭하여 6월 8일에 대동강 남안까지 진출했다. 이에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고 평양 유도대장(留都大將) 윤두수(尹斗壽), 순찰사(巡察使) 이원익(李元翼) 등이 평양성에 잔류하여 방어를 담당했다. 6월 14일 밤에 조선군이 일본군(宗義智 군) 진지를 기습하여 수백 명을 참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일본군 후방부대가 역습을 가하여 전세가 역전되었다. 조선군은 다급한 나머지 배를 버리고 수심이 얕은 왕성탄을 건너 강 북안으로 퇴각하였다. 이에 일본군이 왕성탄을 건너 조선군을 공격함으로써 모란봉이 점령당하고 평양성까지 압박했다. 조선군은 다시 의주·영변·순안 등지로 후퇴했고, 일본군은 6월 15일 평양성에 입성하였다.⁴¹⁾

일본의 조선 침공이 명나라에 알려지자 명은 전란이 중국에 파급되는 일을 막기 위해 대동강 선에서 일본을 저지한다는 방침 아래 요동 병력의 일부를 조선에 파병(6,7월)했다.⁴²⁾ 1593년 1월 6일, 명의 동정군 총대장 이여송은 평양성 근교까지 진군하여 성을 공격하기 위한 최종적인 태세를 갖추었다. 조선군도 1만여 명에 달하는 탈환군을 편성하여 평양성을 공격하니 이날 밤 일본군은 평양성을 버리고 대동강 건너 중화·황주를 거쳐 봉산으로 남하하였다. 이로써 평양성은 일본군에게 점령당한지 약 7개월 만인 1593년 1월 9일에 수복되고, 조명연합군은 이 작전을 계기로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연합군에게 평양성을 뺏긴 일본군은 한성까지 철수하였으나 병력은 18,700명에서 6,600명으로 격감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⁴³⁾ 명의 병력이 처음엔 ‘평양성에서 일본군이 철수했다’는 허위 정보를 믿어 일본군의

41) 『韓民族戰爭通史』Ⅲ 앞의 책, 162쪽.

42) 『선조수정실록』권26, 선조 25년(1592년) 9월.

43) 『선조수정실록』권27, 선조 26년(1593년) 1월.

함정에 빠져 패퇴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평양 군흥을 일검하의 다 버히고”라 하였으니 이는 나중에 조선이 승리한 일만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 대목과 명군의 활약상을 보인 “황조일석에~산악을 썩엿는 듯”, “상제 성덕(聖德)과 오왕(吾王) 패택(沛澤)이 원근 업시 미쳐시니” 등은 “명군(明軍)의 활약에 비중을 두고 승명사상(崇明思想)을 드러내어 항반층의 체제 순응적이고 보수적인 사고를 담고 있다”⁴⁴⁾는 비판을 받는다.

(3) “황조일석(皇朝一夕)에 대풍(大風)이 다시 이니/용(龍) 갯한 장수(將帥)와 구름 갯흔 용사(勇士)들이/정기폐공(旌旗蔽空)하야 만리(萬里)에 이어서니/병성(兵聲)이 대진(大振)하야 산악(山岳)을 썩엿는 듯/병방(兵房) 어영대장(御營大將)은/선봉(先鋒)을 인도(引導)하야 적진(賊陣)에 돌격(突擊)하니/질풍대우(疾風大雨)에 벽력(霹靂)이 즈치는 듯/…/저근듯 해위(解圍)하야 사기(士氣)을 쉬우더가/적도(賊徒)ㅣ분궤(犇潰)하니 못다 잡아 말년제고/굴혈(窟穴)을 구어보니 두근덧도 하다마는/유패회신(有敗灰燼)하니 부재험(不在險)을 알니로다”“(「태평사」)

위는 정유재란에서의 전세를 담고 있다. ‘저근듯~’의 풀이는 “잠깐사이 싸움 쉬며 사기를 돌우다가/적의 무리 달아나니 못다 잡고 말 것이라./적의 소굴 굽어보니 굳은 듯도 하다마는/패하여 불탄 형세, 험한 요새가 다 아닐세.”이다. ‘부재험(不在險)’은 “위(魏)나라 무후(武侯)가 오기(吳起)에게 ‘홀룡하구나, 이 험준한 산하의 요새여! 이야말로 위의 보배로다.’ 하니 오기가 ‘나라의 보배는 임금의 덕행이지 산하의 험고함이 아닙니다. 옛날 삼묘씨(三苗氏) 나라는 동정호(洞庭湖)와 팽려호(彭蠡湖)를 낀 험한 땅이었으나 덕과 의를 닦지 못해 우(禹)에게 무너졌습니다.”⁴⁵⁾한

44) 고순희, 1996, 앞의 논문, 127~129쪽.

데서 유래한다. “땅의 이로움이 사람의 화합보다 못하고, (나라의 보배는) 덕에 있지 산천의 험함에 있지 않다.”⁴⁶⁾ 하고, “하늘의 왕성한 기운이 땅의 이로움(城의 견고함, 지형의 험함)만 같지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인심의 화합에 미치지 못한다.”⁴⁷⁾ 했다. 일본이 패전하여 요새를 버리고 달아난 것을 두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천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시는 땅의 이로움(견고한 요새)만 못 하고, 땅의 이로움은 임금의 덕행과 인화(人和)에 미치지 못함을 강조한다. 「태평사」는 조선군이냐 명군의 패전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승전 소식이나 그 의미에는 온갖 전고를 활용하여 부각시키려 했다.

「재일본장가」는 전쟁 포로의 비애를 담아 전란의 참상을 전한다.

(4) “어와 이내 몸이 일일(一日)도 삼추(三秋)로다/해동이역(海東異域)을 이 어디라 훌개이고/천심(天心)이 부조(不助)하니 만리표림(萬里漂臨)이라/눈물을 베셔고 좌우(左右)를 도라보니/어음(語音)이 부동(不同)하고 풍속(風俗)이 상위(相違)로다”(「재일본장가」)

풀이하면 “아 이내 몸이 하루가 삼년 같도다./바다 동쪽 낯선 나라 이 어디라 할 것인가./하늘의 도움 없어 만 리 타국 떠돌다가/눈물을 삼키고 좌우를 돌아보니./말소리 같지 않고 풍속도 다르도다.”이니 풍속과 언어가 다른 일본에서 포로로 끌려간 괴로움을 담고 있다. 백수희의 시조, “해운대(海雲臺) 여흰 날의 대마도(對馬島) 도라드러/눈물 베셔고 좌우를 도라보니 창파만리(滄波萬里)를 이어디라 훌개이고/두어라 천심조순(天心助順)하면

45) “武侯 謂吳起曰 美哉乎山河之固 此魏國之寶也 起對曰 在德不在險 昔三苗氏左洞庭 右彭蠡 德義不修 禹滅之”(『史記』列傳 卷65, 孫子吳起列傳 第五).

46) “地利不如人和 在德不在險宋”(王應麟 撰,『通鑑地理通釋』七國形勢考上).

47) “孟子曰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孟子』卷4, 公孫丑 下).

사반고국(使返故國)호리라”(「도대마도가(到對馬島歌)」)에도 “눈물 베서고 좌우를 도라보니”, “창과만리를 이어더라 홀게이고”가 반복된다. 이는 작자가 낯선 나라에서 서러운 눈물을 삼켰음을 뜻한다. 강항의 글, “배는 떠났다. 해는 이미 석양이었다. 그날 밤 안골포(安骨浦)에 가서 자고 이튿날 떠나 남으로 동으로 망망한 바다를 횡단하면서 온종일 가고 또 밤을 이어가더니 문득 멀리 닭 우는 소리가 들리며 새벽안개 속으로 가로놓인 큰 육지가 보였다. 이는 곧 대마도였다. 당도하니 우선 가옥 제도도 다르고 의복 범절이 다 괴이하여 비로소 판 세계에 온 줄을 알았다. 아들을 낳으면 뽕나무 활에 쏘대 화살로 하늘과 땅과 사방을 쏜다 지만 이 몸이 이렇게 왜국에 오게 될 줄이야 어찌 뜻하였으랴.”⁴⁸⁾에도 비슷한 탄식이 보인다.

일본 기록에는 “수많은 남녀와 아이들을 본방(일본)으로 데려왔다. 지금까지 하인이 없던 사람들까지 별안간 주인이 되어 기쁜 나머지, (풍신수길의) 조선을 침략해 주면 더 많은 하인을 부릴 수 있을 텐데…….”라고 하였다.⁴⁹⁾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은 “도후쿠(東北)에서 오키나와(沖繩)까지 널리 퍼져있었는데, 규슈(九州)·시코쿠(四國)·추코쿠(中國)를 비롯한 서일본과 오사카(大坂)·교토(京都)·나고야(名古屋)·순푸(駿府)·에도(江戸) 등 도시와 항구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⁵⁰⁾ 강항은 “대마도를 거쳐 일기도(이키시마), 장기(長崎, 나가사키), 대진성

48) “船既解纜 日已晡矣 夜宿安骨浦 翌日發安骨浦 乍南乍東 橫截大海 窮日之力 繼之以夜 忽聞遠鷄聲 曉頭雲霧中 望見大陸橫亘 卽對馬島也 人家異制度 衣巾皆詭製 始知爲他世界也 男子之生 固以桑蓬射天地四方 然孰謂身到倭國也”(姜沆, 涉亂事迹, 『看羊錄』, 丁酉 9月 24日).

49) 『分類紀事大綱』부록4, 佐護式右衛門覺書 ; 요네타니 히토시(米谷均), 앞의 책, p.87.

50) 요네타니 히토시(米谷均), 앞의 책, p.89.

(大津城, 오쓰 성)에 이르러 머물게 되었다.”⁵¹⁾했는데, 둘이 소식을 듣고 전한 것을 보면 백수회도 경도나 대진성 부근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5) “늘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니 실시/을사(乙巳) 삼하(三夏)에 진동영(鎭東營) 느려오니/관방중지(關防重地)에 병(病)이 깊다 안자실랴/일장검(一長劍) 비기 촌고 병선(兵船)에 구테 올라/여기진목(勵氣臚目)하야 대마도(對馬島)을 구어보니/벼람 조친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사혀 잇고/아득흔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혼 빗칠쇠”(「선상탄」)

(6) “금일 주중에는 대검장쟁(大劍長鎗) 뿐이로다”(「선상탄」)

(5)에는 부산 앞바다의 수군으로 부임하여 잠시도 그냥 있을 수 없어 긴 칼을 차고 병선에 올라 두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보는 작자의 모습을 그렸다. (5)의 “벼람 조친 황운은 원근에 사혀 잇고/아득흔 창파는 긴 하늘과 혼 빗칠쇠(누런 구름 바람 따라 여기저기 떠 있고/아득한 푸른 물결 하늘과 한빛일세)”이나 (6)을 보면 당시에조차 여전히 전쟁의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2. 내재된 근심과 회한, 분노와 울분

전쟁은 지속적인 불안과 근심과 후회를 유발하고, 이는 분노와 울분의 감정으로 바뀐다.

(1) “해중 모든 섬에 난당적(難當賊)을 기쳐 두고/통분(痛憤)흔 수욕(羞辱)이 화하(華夏)에 다 밋나다”(「선상탄」)

(2) “느느 돛흔 판옥선(板屋船)을 주야의 빗기 타고/임풍영월(臨風咏月)호디 흥이 전혀 업는 게오/석일(昔日) 주중(舟中)에는

51) 姜沆 著, 涉亂事迹, 『看羊錄』, 20~21쪽.

배반(杯盤)이 낭자(狼藉)터니/금일 주중에는 대검장쟁(大劔長鎗)
뿐이로다/흔가지 비언마는 가진 비 다라니/기간(其間) 우락(憂
樂)이 서로 꺾지 못 하도다”(「선상탄」)

(1)은 “바다 속 모든 섬에 감당 못할 도적 두고/원통한 모욕감
을 중국까지 다 미쳤다.”란 뜻이니, 일본의 침략으로 받은 분하
고 원통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담았고, (2)는 전쟁의 긴장감 속
에서 근심하는 고통의 나날을 묘사하고 있다. “어와 이내 몸이
일일(一日)도 삼추(三秋)로다/해동이역(海東異域)을 이 어디라 흘
게이고/천심(天心)이 부조(不助)하니 만리포림(萬里漂臨)이라/눈
물을 베서고 좌우(左右)를 도라보니”(「재일본장가」)에는 낯선 땅
에서 불운을 타하며 눈물 삼키는 모습을 담고 있다.

내재된 근심과 수치·모욕감은 이내 분노와 공격으로 이어진다.

(3) “선상(船上)에 배회(徘徊)하며 고금을 사억(思憶)하고/어리
미친 회포(懷抱)에 현원씨(軒轅氏)를 애드노라/대양(大洋)이 망
망(茫茫)하야 천지에 둘러시니/진실로 비 아니면 풍파만리(風波
萬里) 밧기/어니 사이(四夷) 엇볼넌고/무슴 일 하려 하야 비 못
기를 비롯하고/만세천추(萬世千秋)에 ㄴ업슨 큰 폐(弊)되야/보천
지하(普天之下)에 만민원(萬民怨) 길우느다/어즈버 씨드라니 진
시황(秦始皇)의 타시로다/비 비록 잇다하나 왜(倭)를 아니 삼기
던들/일본 대마도(對馬島)로 뵈 비 절로 나올넌가”(「선상탄」)

윗글에서는 ‘어리 미친 회포’라 하며 일본에 대한 분노를 엉뚱
하게도 현원씨(軒轅氏)나 진시황에 대한 책임전가로 돌리고 있
다. 임진왜란은 풍신수길의 개인적 공명심과 영웅심, 대명무역
확대, 해외발전 또는 봉건영주들의 세력 약화를 위한 것이었다
는⁵²⁾ 실상과 달리 “어리 미친 회포에 현원씨를 애드노라”에는

52) 崔永禧, 1995, 왜란 전의 정세, 『한국사』29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

그저 황제 헌원이 배와 수레, 연장과 그릇을 만드는 바람에⁵³⁾ 왜적이 조선을 쳐들어왔다고 원망했으니 답답한 마음에 괜한 데에다 억지를 쓰는 치기(稚氣)를 담았다. “어즈버 씨드라니 진시황의 타시로드~”도 긴 사연을 담고 있다.

(4) 진시황이 이르기를 “제나라 사람 서복(徐市)이 바다 가운데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洲) 삼신산에 신선이 산다 하니, 몸을 깨끗이 하고 어린 남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을 찾아보라.” 하였다. 이에 서복은 어린 남녀 수천 명을 데리고 바다라 가서 신선을 찾으러 갔다.⁵⁴⁾

(5) 서복이 다시 돌아와 진시황에게 “신이 바다에 가서 대신(大神)을 만나 불로장생의 약을 원한다고 말하니, ‘네 제나라 왕의 예가 보잘 것 없으니 그 약을 볼 수는 있어도 취할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이에 남녀 아이들과 장인들을 보내야만 얻을 수 있다 합니다.”라고 거짓을 고하였다. 진시황이 크게 기뻐하며 남녀 3천을 보내고 오곡과 여러 장인들을 함께 보냈으니 서복은 편편한 들과 넓은 못을 찾아 머무르고 돌아오지 않았다.⁵⁵⁾

(4), (5)는 진시황의 명을 받아 신선이 사는 곳, 불로초를 찾아 떠난 서복(徐市)이 결국 돌아오지 않고, 편편한 들과 넓은 못이

응, 국사편찬위원회, p.19.

53) “作舟車 造器械 斯軒轅氏之所以開帝功也”(『後漢書』列傳 卷40下, 班固列傳 30下, 班固傳).

54) “齊人徐市等上書 言海中有三神山 名曰蓬萊方丈瀛洲 僊人居之 請得齋戒與童男女求之 於是遣徐市發童男女數千人 入海求僊人”(新校本『史記』本紀, 卷6, 秦始皇本紀 第6).

55) “又使徐福入海求神異物 還為偽辭曰 臣見海中大神 言曰 汝西皇之使邪 臣答曰 然 汝何求曰 願請延年益壽藥 神曰 汝秦王之禮薄 得觀而不得取 於是臣再拜問曰 宜何資以獻 海神曰 以令名男子若振女 與百工之事 即得之矣 秦皇帝大說 遣振男女三千人 資之五穀種種百工而行 徐福得平原廣澤 止王不來”(新校本『史記』列傳, 卷118, 淮南衡山列傳 58).

있는 곳에 정착했는데, “진시황 때 서복이 배에 남녀 아이들을 싣고 바다로 나가 일본의 기이주(紀伊州) 웅야산(熊野山)에 머물러 살았다고 한다. 웅야산에는 지금도 서복의 사당이 있고 진(秦)씨가 그 자손이다.”⁵⁶⁾ 했으니, 「선상탄」은 서복이 일본에 정착했다는 전설에 따라 일본에 사람을 살게 한 ‘진시황’을 원망하고 있다.

왜적을 비유한 말에도 분노와 울분이 섞여 있다. “서절구투(鼠竊狗偷)을 저그나 저홀소냐”, “준피도이(蠹彼島夷)들아~”(「선상탄」)에서 ‘서절구투’는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쥐새끼”, 즉 좀도둑 ‘서적(鼠賊)’을 뜻한다. “이는 한날 도둑떼라든가 좀도둑에 불과할 따름인데 어찌 입에 오르내릴 거리나 되겠습니까?”에서 처럼⁵⁷⁾ 왜적을 도적떼에 비유한 것이다. ‘준피도이’는 벌레가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것을 폄하한 말로, ‘준동(蠹動)·준이(蠹爾)·우준(愚蠹)’ 등으로 쓰이는데, 이는 “어리석어 사리분별을 못하고 불손한 오랑캐”를 비난⁵⁸⁾하는 말로 쓰인다. “청정(淸正) 소수두(小豎頭)도 장중(掌中)에 잇건마는”(「태평사」)는 왜장 가등청정을 모욕한 욕설이고, “교활한 적, 또는 그 무리”를 뜻하는 ‘활적(猾賊)/도이(島夷)/군흉(群凶)’(「태평사」)도 왜적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담은 표현이다.

3. 위기에 더욱 빛나는 절개와 충정

지사(志士)들에게 ‘지조’와 ‘충절’이라는 관념은 상황이 어려울

56) “秦始皇時 徐福載童男女入海 至倭紀伊州熊野山止焉 熊野山尚有徐福祠 其子孫今爲秦氏”(姜沆, 賊中封疏, 『看羊錄』).

57) “此特羣盜鼠竊狗盜耳 何足置之齒牙間”(『史記』卷99, 列傳39, 劉敬叔 孫通列傳).

58) “蠹爾蠻荊 大邦爲讎”(『詩經』, 小雅, 南有嘉魚之什, 采芑).

수록 스스로를 다잡는 끈으로 작용하니, 절개에는 어려움을 극복 하려는 숭고한 의지가 담겨있다. “무상(無狀)흔 우리 물도 신자(臣子) 되야 이셔더가/군은을 못 갑홀가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이셔/칠재(七載)를 분주(奔走)터가 태평 오늘 보완디고”(「태평사」), “시시(時時)로 멀이 드러 북신(北辰)을 브라보며/상시노루(傷時老淚)를 천일방(天一方)의 디이느다/…(중략)…/이 몸이 무상(無狀)흔들 신자(臣子)ㅣ 되야 이셔다가/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몬 미읍고 늘거신들/우국단심(憂國丹心)이야 어니 각(刻)에 이즐 년고”(「선상탄」)에는 전쟁 상황에서 군은을 갇고자 죽을 각오로 싸우고, 국운이 불행해도 우국단심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1) “이제(夷齊)의 채미(采薇)와 소무(蘇武)의 한절(漢節)과/천상(天祥)의 위국단심(爲國丹心)을 닛디 아닌 이내 ㅁ읍/조조모모(朝朝暮暮)의 서산을 창망(悵望)하니/일촌간장이 쁜듯 닛듯”(「재일본장가」)

이 작품과 시조에 공통적으로 “천상의 위국단심을 닛디아닌 이내ㅁ읍”, “청풍과 명월을 벗 삼은 몸이 위국단심(爲國丹心)을 못내 슬허호노라”라는 대목이 있다.

(2) **이제(夷齊) 채미(采薇)** : 백이(伯夷) 숙제(叔齊)의 고사. 은나라 28대 주왕(紂王)이 달기(妲己)를 총애하여 문란할 때, 주(周) 무왕(武王)은 가까운 이민족을 끌어 모아 은나라를 공격, 그 도읍지 하남성(河南省) 상읍(商邑)을 함락시키고 주왕을 죽였다.⁵⁹⁾ 이전에 백이·숙제가 “부왕(서백西伯 창昌)이 돌아가시어 아직 장례도 모시기 전에 무기를 드는 것은 효가 아니다. 또 신하의 몸으로 임금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인(仁)이라 할 수 없다.”하며

59) 宮崎市定 著, 曹秉漢 譯, 1983, 『中國史』, 역민사, 60~61쪽.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무왕을 모시던 신하들이 백이와 숙제를 없애려 했으나, 태공(太公)은 “이 사람들은 의인(義人)이다.”하며 살려 보냈다. 무왕이 은나라를 평정하자 백이·숙제는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신의를 위해 주나라 녹을 받지 않고 수양산에 숨어 고사리를 캐 먹으며 연명하다 죽었다.(『사기』열전, 백이열전 제1)

(3) 소무(蘇武)의 한절(漢節) : 소무는 한(漢)나라 사람으로 무제(武帝) 때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 억류되었다. 흉노의 선우(單于)가 그를 항복시키려고 동굴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갖은 수단을 다 썼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이에 북해(바이칼)로 보내져 양을 치며 고생하다가 19년 만에 돌아오니 무제를 이은 소제(昭帝)가 그의 절개를 기리어 전속국(典屬國) 벼슬을 내렸다.⁶⁰⁾

(4) 천상(天祥)의 위국단심(爲國丹心) : 천상(天祥)은 남송(南宋)의 시인이자 민족 영웅 문천상(文天祥, 1236~1283)을 말한다. 1275년, 원(元)의 군사가 공격해 오자 의병을 조직하여 왕실을 구원했다. 1278년 12월, 조주(潮州, 廣東城) 전투에서 패하여 포로가 되었다. 대도(大都, 燕京)에 압송되자 원 세조(쿠빌라이 칸)가 그의 재능을 아껴 벼슬을 권하였으나 투항하지 않고 죽었다.⁶¹⁾

“이제의 채미, 소무의 한절, 천상의 위국단심”은 전쟁 포로인 백수회에게 정신적인 나침반이자 자기 맹세와 다짐의 지표였음을 알 수 있다. 백수회의 『송담유사』 ‘함께 온 조선인에게 부치는 글(與同來朝鮮人書)(1600년)’에도 “한 소무는 들쥐처럼 굴에 살며 산열매를 먹고 살았어도 오랜 세월동안 충의를 기리지만,

60) 풍국초 저, 이원길 역, 2005, 『인물과 사건으로 보는 중국 上下 오천년사』

(1) -신화시대부터 남북조시대까지, 신원문화사, 250~253쪽.

61) 『宋史』卷418, 列傳177 ; 文天祥, 過零丁洋, 『文山集』卷19, 指南後錄1.

이릉(李陵)과 위율(衛律)은 흉노에 항복하여 후한 녹봉을 받았으나 사람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⁶²⁾ 하여 소무의 정절을 기리고 있다. ‘한절(漢節)’은 “한나라 천자가 절개의 표상으로 내려준 부절(符節)”을 뜻한다. 남명 조식의 「소자경사(蘇子卿詞)」에도 “외로운 몸은 죽지 않고 한절만 손에 있네.”⁶³⁾라 하여 소무의 절의를 기렸다. 백수회도 (4)의 문천상과 같이 “인생에서 누구인들 죽지 않겠는가. 단심을 굳게 품어 청사를 비추리라(「過零丁洋」)”⁶⁴⁾는 의지를 가지고 지냈음을 알 수 있다.

(5) 강사준·정창세와 하대인(河大仁)에게 시를 지어 주었다. 그들은 진주의 세 큰 성씨로 당파를 떠나 매우 반갑기 때문이다. “만 리 절역에서 고국 사람 만나니, 마음 먼저 서글퍼 연유 차마 못 묻네. 북해에서 삼년 고절 이내 몸 부끄럽고 팔척장신 포로의 몸 그대가 가없어라./서리에도 꺾이지 않네. 섯 풀은 피 령고, 선달 매화는 눈 속에도 봄이어라. 술 단지 놓고 눈물 씻으니 도리어 웃음 되네. 치욕 속에서 그대와 정을 나눔 기뻐라.”⁶⁵⁾

(6) 이엽은 글도 잘하여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할 때 시 한 수를 지었다.

“봄이 바야흐로 동쪽으로 오니, 원한 또한 바야흐로 길어지고, 바람 스스로 서쪽으로 돌아가니, 뜻 또한 스스로 바빠지누나./어버이는 밤 지광이 잃고, 새벽달에 울부짖으며, 아내는 낮 촛불

62) “蘇武 堀野鼠 食草實 而千載之下 人皆稱其忠焉 李陵衛律 降匈奴(凶奴) 積萬鍾 而人不能稱焉”.

63) 조식, 『남명집』 권1 ; 『문충』 31, 477~478쪽.

64) “人生自古誰無死 留取丹心照汗青”(文天祥, 過零丁洋, 『宋史』 권418, 列傳 177 ; 『文山集』 권19, 指南後錄1).

65) “絕域相逢故國人 傷心不忍問由因 慙吾北海三年節 愛子南冠八尺身 勁草不摧霜後綠 寒梅猶戀臘前春 樽前破涕還成笑 泥露多君德有隣”(姜沆, 涉亂事迹, 『看羊錄』).

같아서, 아침벌에도 눈물지으리./들으니 옛집 마당에는 꽃 아마 지고 있으며, 지켜오던 조상 묘지에는 풀 반드시 거칠었으리. 모두 다 삼한의 당당한 후예로서 어찌타 이역에서 짐승과 섞이랴”(66)

(5)에는 포로의 몸으로 절개를 꺾지 않는 모습을 눈 속의 매화에 비유하면서 그 지조를 칭송하고, (6)에서는 왜인들을 짐승에 비유하면서 낯선 땅에서 그들에게 훼손할 수 없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애통하다! 듣자하니 장천(長川) 사람 김일(金鎰)의 진이 싸움에 지자 한양우(韓良佑)의 딸이 포로로 잡혀가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켰다. 한 고을의 사족 가문에서 왜놈들에게 욕을 당한 여인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목숨을 버려 의를 이룬 일은 잘 듣지 못했다. 온몸을 묶어 못살게 구는데도 끝내 깨끗한 뜻을 풀지 않았으니 참 미덥도다. 몇몇한 품성을 가지고 사는 데는 귀하고 천하고 어리석고 지체로운 사람 할 것 없이 고루 주어졌구나. 참으로 존경할 일이다.”(67) 하여 포로가 되면 모욕적인 삶에 연연하지 말고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을 진정한 절의라 여긴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처절한 절의도 조선에서는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 “강항(姜沆)은 형조 좌랑으로, 온 집안이 왜적에게 잡혔는데, 여러 차례 죽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일본으로 잡혀가서는 몰래 납서(蠟書)를 보내 왜적이 동태를 알렸으며, 모

66) “春方東到恨方長 風自西歸意自忙 親失夜筇呼曉月 妻如晝燭哭朝陽 傳承舊院花應落 世守先塋草必荒 盡是三韓侯閼骨 安能異域混牛羊”(姜沆, 위의 책).

67) “痛哭痛哭 聞長川洞人金鎰陣亡 韓良佑之女 被擄死節云 一州士族之家 被汚於賊奴者 非一二人 而未聞捐生取義之者 至以縛束驅迫 而終不渝其素志云 信乎 秉彝之在人者 無貴賤愚智 而均賦也 可欽可欽”(趙靖, 『壬亂日記』 선조 25년 5월 19일; 民族文化研究所 編, 1983, 黔澗趙靖先生『壬亂日記』, 嶺南大出版部, 53, 311쪽).

습을 저들처럼 바꾸어 훼손시키거나 의관을 바꾸지 않은 채 지냈는데, 4년이 지난 경자년에 왜인들이 귀국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선조가 그를 불러 왜적의 정세에 대해 두루 물어보았고, 이후에 회답사(回答使) 여우길(呂祐吉) 등이 일본에 갔을 때 왜인들이 그의 절의를 몹시 칭찬하여 소무(蘇武)와 문천상(文天祥)에 비유하였다. 김장생(金長生) 등이 그를 거두어 서용하기를 권하였으나 당론이 한창 성한 때라 끝내 폐기된 채로 생을 마쳤다.”⁶⁸⁾

이에 더하여 “강항은 임란을 당하여 왜적에게 포로가 되었다 쫓겨났다. 그를 일러 왜적에게 항복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나 그에게 무슨 칭찬할 만한 절의가 있겠는가. 이런데도 이단하는 당론에 병들어 추증하기를 청했으니 참으로 『논어』에서 말한 대로 ‘내가 누구를 속이겠는가. 하늘을 속이겠는가?’ 하는 것이다.”⁶⁹⁾ 라는 자료까지 있으니 조선의 조정이 임진·정유왜란에서 전쟁 포로들이 보인 처절한 수절을 인정하는 일에 아주 인색했음을 알 수 있다.

4. 굳은 결의(決意)와 불타는 전의(戰意)

전란가사에서 눈앞에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전의는 비장미를 자아내는데, “강개(慷慨) 계운 장기(壯氣)는 노당익장(老當益壯) 헝다마는”(「선상탄」), “국운이 불행 헝야 해추흉모(海醜兇謀)애/만고수(萬古羞)을 안고 이셔/백분(百分)에 헝 가지도 못 시셔 버려거든”(「선상탄」)에는 일본에 대한 분노가 결의로 나타나 있다. “청정 소수두(小豎頭)도 장중(掌中)에 잇건마는”은 “하늘 비 재앙 내려 사줄이 피곤하여/잠깐사이

68) 『현종개정실록』권19, 현종 9년(1668년) 4월 13일.

69) 『현종실록』권14, 현종 9년(1668년) 4월 13일.

싸움 쉬며 사기를 돋우다가/적의 무리 달아나니 못다 잡고 말 것이라.”(「태평사」)는 구절과 이어지는데, 여기엔 조선의 위기 이후에 명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한순간에 가등청정의 머리를 베겠다며 전의(악화된 대일감정)⁷⁰⁾가 최고조에 달했다.

(1) “그러나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仲達)을 멀리 좇고/발업손 손빈(孫臏)도 방연(龐涓)을 잡아거든/흐믓며 이 몸은 수족(手足)이 ㄴ자 잇고/명맥(命脈)이 이어시니/서절구투(鼠竊狗偷)을 저그나 저홀소냐/비선(飛船)에 돌려드려 선봉(先鋒)을 거치면/구시월(九十月) 상풍(霜風)에 낙엽가치 헤치리라/칠종칠금(七縱七擒) 우린들 못홀 것가”(「선상탄」)

「선상탄」은 정유왜란이 끝난 직후에 전선에 남은 전운을 그린 작품이지만 결연한 의지는 전시에 못지않다. 중국역사에서 일방적 승리를 거둔 세 가지 고사를 인용하면서 일본군의 어떤 침략도 맘대로 물리치고 전쟁 걱정을 싹 씻어버리고자 하는 무의식을 담고 있다.

(2)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仲達)을 멀리 좇고” : ‘사제갈’은 죽은 제갈공명을, ‘생중달’은 사마의(司馬懿, 179~251)이다. 사마의(字 중달)는 동한(東漢) 말 삼국시대의 군사가로 지략이 뛰어나 조조(曹操)의 막하에서 모사(謀士)로 활약했다. 둘은 서로 상대의 마음을 꿰뚫는 심리전에 능했는데, 제갈량이 전투 중에 병들어 죽는다. 제갈량의 죽음을 비밀에 부치고 강유(姜維)가 사마의를 향하여 나아갈 것처럼 하니 사마의가 군사를 거두어 물러나 감히 압박하지 못했다. 야곡(斜谷)으로 들어간 다음에야 제갈량의 죽음을 발표하니 백성들이 “죽은 제갈량이 산 중달(仲達)을 도망하게 하였다.” 하였다. 사마의가 이 소리를 듣고, “나

70) 최웅, 1992, 앞의 책, 687쪽.

는 그가 살았다고는 생각할 수 있었지만 죽었다고는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⁷¹⁾

(3) “발업손 손빈(孫臏)도 방연(龐涓)을 잡아거든” : 손빈(孫臏, 孫子)은 제(齊)나라 사람으로 병법에 능했다. 동학인 방연(龐涓)이 위(魏) 혜왕(惠王)의 장수가 된 후 재능이 남다른 옛 친구 손빈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 다리뼈를 부러뜨렸다. 이때 ‘빈(臏)’이라 이름 지었다. 제나라 사신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에 성공하여 위(魏)와의 전투에 참가한다. 손빈은 방연의 위군을 유인하면서 추격 속도까지 계산하여 마릉(馬陵)에 제의 군사를 매복시키고 큰 나무 꺾질에 ‘방연, 이 나무 밑에서 죽다.’라고 써 놓아, 방연이 자신의 지혜가 모자라 전쟁에 패배했음을 자책하며 자결하는 시점까지 예언한 일화⁷²⁾로 유명하다.

(4) “칠종칠금(七縱七擒) 우리들 못 할 것가” : 225년, 촉의 제갈량이 남만왕(南蠻王) 맹획(孟獲)을 일곱 번 잡았다 놓아준 『삼국연의』의 일화. 맹획이 첫 번째는 위연에게 생포되고, 두 번째는 자신의 부장 동도나(董荼那)와 각 부족 추장에게 잡혀 제갈량에게 끌려갔다. 세 번째는 마대(馬岱)의 꾀에 빠져 붙잡혔으며, 네 번째는 제갈량과 좁은 길에서 맞닥뜨렸다가 함정에 빠졌다. 다섯 번째는 연회가 벌어지는 도중에 사로잡혔고, 여섯 번째는 맹획이 체포된 것처럼 꾸며 거짓 투항한 후 제갈량을 찌르려고 했지만 제갈량에게 들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일곱 번째는 마대에게 생포되었다.⁷³⁾ 제갈량이 다른 사람을 보내 맹획을 풀어주게 하면서 또 한 번 싸울 채비를 하라고 하니 맹획이 눈물을 흘리며,

71) 『資治通鑑』卷72, 魏紀4, 烈祖明皇帝中之上, 명제 청룡2년(234년).

72) 『資治通鑑』卷2, 周紀, 魯共公薨子康公生立, 顯王 28년 B.C.341.

73) 허유영, 왕평, 제갈량 편집팀, 2007, 『제갈량 문화유산 답사기 -사진으로 읽는 제갈량사』, 에버리치홀딩스, 172쪽.

“승상께서는 이 못난 맹획을 일곱 번이나 사로잡았다 놓아주셨는데 고금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승상께서 저에게 베푼 은덕을 모르고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하며 맹세하기를, “우리 남인들은 승상의 하늘같은 위엄을 기억하고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했다. 제갈량은 맹획을 영원한 남인의 동주(洞主)로 책봉하고 촉나라가 점령한 땅을 되돌려주었다.⁷⁴⁾

(2)는 사마의가 제갈량의 죽음을 비밀에 부치고 진격하여 적을 물리친 일을 “죽은 제갈량이 산 중달(仲達)을 도망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죽어 혼이 되어서도 일본 군사를 물리치려는 마음을 담았고, (3)의 “발업손 손빈(孫臏)도 방연(龐涓)을 잡아거든”에도 박인로는 자신을 손빈에, 일본군을 방연에 비유하여 전의를 가다듬고 있다. 손빈이 방연에게 다리뼈가 부러지는 수모를 당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 방연을 이기어 목숨을 끊게 만든 고사를 인용하여 일본에 당한 모욕을 반드시 되갚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자신은 수족을 갖추고 목숨도 붙어있으니 두려움 없이 왜군을 무찌르겠다.”는 구절에는 제갈량과 손빈의 젊은 혈기와 기운찬 풍모가 서려있다.⁷⁵⁾ (4)의 “칠종칠금(七縱七擒) 우리들 못 할 것가”는 제갈량이 북벌의 임무에 전념하기 위해 남만의 맹획에게 쓴 유화책을 언급한 것으로, 일본의 침략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오로지 태평한 세월을 누리하고자 하는 작자의 심정을 담고 있다. “대장부의 절개가/촌철(寸鐵)보다 더 굳다네./마구 쏘는 물 여우에 놀라고,/두견새 맹렬한 소리 시끄럽네./너무 부끄러워 허공에 소리치고,/맺힌 원한 땅속까지 울리네./임금과 아버지 원한 씻으려고,/오롯이 싸우리라 다짐한다네.”⁷⁶⁾ 노인(魯認, 156

74) 풍국초 저, 이원길 역, 2005, 앞의 책, 355~356쪽.

75) 鄭在鎬, 1982, 『韓國歌辭文學論』, 集文堂, 453쪽.

76) “大丈夫節 愈堅寸鐵心 蟻吹驚暗射 鳩舌鬧狂音 至恥號天杳 私冤叩地深

6~1622)이 백수희에게 보낸 시인데 어려운 상황에 절망하고 체념하는 대신 자신의 전의와 절개를 굳게 하여 일본에 복수할 때까지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결의를⁷⁷⁾ 잘 담고 있다.

5. 고향과 태평시절에 대한 그리움

전시 상황에서 벗어나 태평성대를 누리려는 마음은 현실 상황 극복에 대한 소망과 의지의 표현이자 현실을 버려내는 원동력이다.⁷⁸⁾ 전란가사에서 가장 빈번히 반복되는 소주제가 바로 향수와 태평기원이다. “처처구학(處處溝壑)에 흐터 잇던 노리(老羸)드리/ 동풍신연(東風新燕) 가치 구소(舊巢)을 츠자 오니/수구초심에 뉘아니 반겨흐리/원거원처(爰居爰處)에 즐거움이 엇더흐노”(「태평사」)에는 난을 피해 골짜기 여기저기에 숨어 지내던 백성들이 마치 제비처럼 옛집을 찾아 들어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렸고, “조조모모(朝朝暮暮)의 서산(西山)을 창망(悵望)하니/일촌간장이 뜰듯 닛듯”(「재일본장가」)에는 매일 고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애간장 태우는 포로의 일상을 담았다.

“칠재(七載)를 분주(奔走)터가 태평(太平) 오늘 보완디고”(「태평사」), “투병식과(投兵息戈)하고 세류영(細柳營) 도라들 제/태평소(太平簫) 노푼 솔의예 고각(鼓角)이 섯겨시니/수궁(水宮) 김흔곳의 어룡(魚龍)이 다 우는 듯/용기(龍旗) 언건(偃蹇)하야 서풍(西風)에 빗겨시니/오색상운(五色祥雲) 일편(一片)이 반공(半空)에 셔러던 듯/태평(太平) 모양(模樣)이 더욱 흐나 반가올사”(「태

誓雪君親怨 長含矢石忧”(魯認, 和泉州 贈白友受繪, 『錦溪集』卷1 ; 『韓國文集叢刊』, 184쪽).

77) 장미경, 2003, 「壬亂 被虜者의 捕虜體驗 漢詩 研究 -鄭希得을 중심으로」, 『漢文教育研究』20, 韓國漢文教育學會, 277쪽.

78) 최상은, 2002, 「蘆溪歌辭의 창작 기반과 문학적 지향」, 『韓國詩歌研究』11, 韓國詩歌學會, 268쪽 참조.

평사」)에는 평화를 되찾은 데 대한 감격과 기쁨을 담고 있다.

(1) “삼척상인(三尺霜刃)을 흥기(興氣) 계워 둘러메고/양면장소(仰面長嘯)하야 춤을 추려 이려셔니/천보(天寶) 용광(龍光)이 두 우간(斗牛間)의 소이느다/수지무지(手之舞之) 족지도지(足之蹈之) 절노절노 즐거오니/가칠덕(歌七德) 무칠덕(舞七德)을 그칠줄 모르로다”(「태평사」)

여기서 ‘수지무지(手之舞之)’는 “기뻐하며 손을 들고 춤을 춘다.”, ‘족지도지(足之蹈之)’는 “발을 구르며 춤을 춘다.”는 뜻이다. ‘가칠덕 무칠덕’은 파진악(破陣樂), 즉 당 태종이 유무주(劉武周)를 정벌할 때 군중에서 지은 음악으로, 즉위 후에도 연회 때는 반드시 이 음악을 연주했다. ‘칠덕가(七德歌)’는 시가(詩歌)의 7가지 특징이고, ‘칠덕무(七德舞)’는 당나라의 춤 이름이다.⁷⁹⁾ 「태평사」를 지은 것은 1598년 겨울로 정유재란이 끝나던 막바지이니 마음 편히 손을 흔들고 발을 구르며 흥을 돋울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그러나 “가칠덕 무칠덕을 그칠 줄 모르로다.”는 있는 현실이기보다는 있어야 할 현실인데, 둘의 간극이 넓을수록 전란이 주는 비애감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전란가사에 드러나는 화자의 꿈과 이상은 그리 높지 않다. “기자(箕子) 유풍(遺風)이 고금(古今) 업시 순후(淳厚)하야/이백년래(二百年來)에 예의(禮義)을 숭상(崇尚)하니/외관문물(衣冠文物)이 한당송(漢唐宋)이 되야쩌니”(「태평사」)처럼 예전의 이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소박한 욕망이다. “태평천하에 요순군민(堯舜君民) 되야 이셔/일월광화는 조부조(朝復朝) 하얏거든/전선(戰船)트던 우리 몸도 어주(漁舟)에 창만(唱晚)

79) “一識理 二高古 三典麗 四風流 五精神 六質幹 七體裁”(唐 皎然『詩式 詩有七德』), “禁暴 戢兵 保大 定功 安民 和众 丰財七件事”(唐初有『秦王破陣樂曲』至貞觀 七年 太宗制『破陣樂舞圖』).

호고/추월 춘풍에 눕히 베고 누어 이서/성대 해불양파(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호노라”(「선상탄」)에서와 같이 늘 요순의 군민으로 살기를 희망하지만 그 바람도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다.

(2) “인간 낙사(樂事) | 이 곳호니 또 인는가/화산(華山)이 어디오 이 말을 보내고져/천산(天山)이 어디오 이 활을 노피 거자/이제야 호을 일이 충효일사(忠孝一事) 뿐이로다/영중(營中)이 일이 업서 긴즈 드러 누어시니/못노라 이 날이 어니 적고/희황성시(羲皇盛時)를 다시 본가 너기로라”(「태평사」)

(3) “천운순환(天運循環)을 아옵게다 하느님아/우아방국(佑我邦國)호샤 만세무강(萬歲無疆) 놀리소서/당우천지(唐虞天地)에 삼대일월 비최소서/어만사년(於萬斯年)에 병혁(兵革)을 그치소서/경전작정(耕田鑿井)에 격양가(擊壤歌)을 불니소서/우리도 성주를 띄우고 동락태평(同樂太平) 호오리라”(「태평사」)

(2)에서 “화산(華山)이~”는 “주(周) 무왕(武王)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화산(華山)의 남쪽에 말을 보내고(歸馬於華山之陽), 도림(桃林)의 들에 소를 보내어 마소와 병사들이 전쟁 없이 쉬도록 한(放牛于桃林之野)”⁸⁰⁾ 일을 말한다. 이는 백성들이 소와 말을 기르고 농사에 힘쓰며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천산(天山)이 어디오 이 활을 노피 거자’는 당나라 설인귀(薛仁貴, 613~683)가 화살 세 발로 텐산(天山)을 평정한 고사에서 유래했다. 설인귀가 연달아 세 발의 화살을 쏘아 세 사람을 맞히니 위구르의 기세가 위축되어 마침내 항복했다. 이에 군사들

80) “武王滅紂 縱馬于華山之陽 放牛於桃林之墟 偃干戈 振兵釋旅 示天下不復用也”(『史記』 권4, 周本紀, 제4 樂記); “歸馬於華山之陽 放牛於桃林之野 示天下不服 山南曰陽 桃林在華山東北 皆非長養牛馬之地 欲使自生死 示天下不復乘用也 修文教也”(李昉 等 撰, 偃武, 『太平御覽』 卷327, 兵部58; 『文淵閣四庫全書』, 子部, 類書類).

이 노래하기를, “장군이 세 발 화살로 천산을 평정하니, 군사들이 길게 노래 부르며 한나라 관문으로 들어서네.”라 했다. 이후 ‘천산에 활을 건다.(弓挂天山)’는 “변방을 편안하게 다스려 돌본다.”는 뜻이 되었다.⁸¹⁾ (3)에 제시한 「격양가(擊壤歌)」 또한 그렇다. 「격양가」는 요임금 때 한 노인이 땅을 두드리며 부른 노래이다. “나이 오십에 길옆에서 땅을 두드리는 노인을 보고, 어떤 사람이 ‘크구나, 요임금의 덕이여’ 했더니, 땅을 두드리던 노인이 “나는 해 뜨면 나가서 농사짓고, 해 지면 들어와 쉬었으며,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먹고 살았을 뿐인데 요임금이 무슨 힘을 보탤는가?”라고 했다.⁸²⁾

전란가사는 모든 일손을 놓고 전쟁에 동원되는 일 없이 말과 소를 농아기르는 평화로운 세월, 해 뜨면 나가 일하고 해 지면 들어와 쉬고 우물을 파서 마시며 임금의 존재나 정치 따위엔 아예 관심을 쓰지 않는 일상의 회복을 바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최소한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한이 되고 만다.

(4) “건곤을 부양(俯仰)하고 고사를 사랑하니/부모의 은덕과 형제의 우애를/못다 감혼 잔구(殘軀)로다/침상의 꿈꾸어 고국의 도라오니/궁실이 여전하고 송국이 황무로다/부모의 절하며 이제(二弟)를 더위잡고/중년불견(中年不見)하여 양생상비(兩生相悲)/니르며 무르며서 체루(涕淚)를 상휘(相揮)하고/적적전정(積積前情)을 못내 베푼 스이에/이요난이(夷謠亂耳)하니 원접경회(遠蝶

81) “薛仁贵领兵击九姓突厥于天山 时九姓有众十余万 令骁健数十人逆来挑战 仁贵连发三矢 射杀三人 九姓气慑遂降 军中歌曰 将军三箭定天山 壮士长歌入汉关”, 后因以 弓挂天山 指安抚边疆(『新唐书』卷83, 列傳33, 薛仁贵传).

82) “傳曰 有年五十擊壤於路者 觀者曰 大哉 堯德乎 擊壤者曰 吾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飲 耕田而食 堯何等力”(王充, 『論衡』, 藝增).

驚廻)호도다”(「재일본장가」)

백수회의 시조 “어와 하도할샤 이내 분별(分別) 하도 할샤/늬 모르는 근심을 못내하야 설운지고/언제나 하늘이 이 뜻아라사 사반고국(使返故國) 호련이고”이나 한시 “몸은 비록 일본에 있으나/맘은 항상 조선에 있다네./이 마음 그 누가 알아주리./야원 몰골로 줄고 있구나./낮선 땅에서 돌아가고픈 나그네/꽃을 보며 슬픔을 못 이겨 한다네./임 그리는 수심에 죽고 싶은 나그네./홀로 서서 하늘의 때만 기다리노라./…/가련하다 갇혀있는 나그네./해 저물 제 고향 하늘만 바라보노라.”⁸³⁾ “작 앓은 기러기 고국에서 먼데./하늘은 막혀있고 기한(飢寒)과 병마에 시달리네./슬프기 그지없다 고향 그린 지 몇 해던고./수절한 지 어언 8년./어머니 길러주신 은혜 갚지 못했고./조상님께 제사도 올리지 못하였네.”⁸⁴⁾(1600년)에 한스러운 그리움이 간절하다. “고향 그리는 나그네 살짝 언제 하애졌다./삼일 내내 쓸쓸히 찬비 뿌릴 제./고향의 꿈은 아직도 생생하네./슬픈 눈물 이기지 못하여 맘이 착잡하네.”⁸⁵⁾에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니 고향의 부모형제들을 꿈에서나마 만나고자하는 포로들의 보편적 심리를 읽을 수 있다.

이상 논의한 세 작품의 특징과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평사」는 「남정가(南征歌)」와 같이⁸⁶⁾ “전쟁 이전의 태평세월→

83) “身雖留日本 心則在朝鮮 是意誰能識 瘦形對影眠 異域思歸客 看花不勝悲 懷君愁欲死 獨立待天時 嶺外歸雲盡 林間鳥獨還 可憐囚楚客 日暮望鄉關”(白受繪, 『松潭先生遺事』).

84) “孤鴻失侶關路長 天寒飢寒負病留 哀哀幾年慕國心 杖節于今八春秋 萱堂未報鞠育恩 北邙又不祀松杖”(白受繪, 庚子冬 述懷, 『松潭先生遺事』).

85) “思歸客鬢何時白 三夜蕭蕭楚雨寒 記得分明家國夢 不堪哀淚自潛潛”(魯認, 夢見雙親兄弟滿堂如平日 覺來涕泣, 『錦溪集』卷1 ; 『韓國文集叢刊』71, 186쪽).

86) 「남정가」는 방어사(防禦使) 김경석(金景錫) 막하(幕下)의 양사준(楊士俊)이 명종 10년(1555년) 왜구가 전남 강진·진도 일대를 노략질한 을묘왜변의

전쟁의 발발→치열한 전쟁 상황(패전과 승전)→평정 회복, 태평 세월 지속 기원”이라는 전형적 흐름을 취한다. 「태평사」에서는 조선이 태평을 회복한 것이 성은에 힘입은 때문이라 했지만, 조선이 임란에서 당한 모욕은 참으로 비참하다.

(5) 벽제역(碧蹄驛)에 이르니 비가 더욱 와서 일행의 옷이 모두 젖었다. 임금께서 역에 들어 잠시 쉬다 곧 다시 떠나려하니 여러 명의 관리들이 도성으로 되돌아가고 시종과 대간 중 몇몇은 아예 뒤쳐져 오지 않았다. 혜음령을 지나면서 비가 퍼붓듯이 내리니 궁인(宮人)들은 약한 말을 타고 무엇으로든 얼굴을 가리고서 울며 뒤따랐다. 마산역(馬山驛)을 지나치며 발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쳐다보며 통곡하기를, “국가에서 우리를 버리고 가니 우리들은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하였다.⁸⁷⁾

조선은 선조의 피란으로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조선 백성 가운데도 왜적을 쫓고 따르며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며 여인의 몸을 더럽히고 지난날의 원수를 갚는 등의 악행이 왜적보다 심한 경우도⁸⁸⁾ 있었다 하니 나라의 근간까지 뒤흔들린

전황을 담아서 지은 작품이다.(李相寶, 1973, 「楊士俊의 南征歌 新攷」, 『국어국문학』62-63, 국어국문학회, 6~7쪽 ; 李相寶, 1979, 『韓國歌辭選集』, 集文堂, 86쪽 ; 金東旭, 1980, 『韓國歌謠의 研究』, 二友出版社, 225쪽) ; 임기중, 2005, 『한국가사문학 주해연구』4, 아세아문화사, 475~476쪽.

87) “至碧蹄驛 雨甚 一行皆沾濕 上入驛 少頃卽出 衆官自此多還入都城者 侍從臺諫 往往多落後不至 過惠陰嶺 雨如注 宮人騎弱馬 以物蒙面 號哭而行 過馬山驛 有人在田間 望之痛哭曰 國家棄我去 我輩何恃而生也”(柳成龍, 『懲愆錄』卷1).

88) “金海 東萊 等地人民 皆附賊 殺掠人物 淫穢婦人 甚於倭賊 金海則如都要渚 一村沿江盛居 自亂初 附賊爲盜 或報其平日恩讐”(趙慶男, 『亂中雜錄』1, 壬辰年 5월 20일 ; 『大東野乘』卷26, 5월 20일) ; “人倫之變 到此極矣 變作之後 流民相聚 乘其無守 偷竊爲事 或假倭威 白晝攻劫 斗筲細利 遇輒攘奪 所在成黨 其勢亦熾 腹心之憂 有甚海寇”(趙靖, 『壬亂日記』 선조 25년(1592) 5월 5일, 앞의 책, 303쪽).

셈이다.

(6) 유성룡이 아뢰기를, “비단 죽은 사람의 살점만 먹을 뿐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도 서로 잡아먹는데 포도군이 적어서 제대로 금지하지를 못합니다.” 하고, 이덕형이 아뢰기를, “**부자 형제도 서로 잡아먹고 있으며 양주(楊州)의 백성은 서로 뭉쳐 도적이 되어 사람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뒤에라야 서로 죽이지 않게 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금지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⁸⁹⁾

(6)을 보면 인륜의 어지러움이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선조가 피란하려 하자 무례한 무리들이 대내로 들어와 귀중한 물건을 함부로 훔쳐갔다는 기록⁹⁰⁾이 있으니 임진란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윤리까지 파괴된 현실이었다. 「태평사」 “상제(上帝) 성덕(聖德)과 오왕(吾王) 패택(沛澤)이 원근(遠近) 업시 미쳐시니”, “성은이 기쁜 아리 오류를 발켜스라/교훈생취(敎訓生聚) | 라 절로 아니 날어가라”에는 성은과 오류를 부각시켜 전쟁 이후의 사회 윤리적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의의도 있지만, 전쟁 이후 사회의 정비를 촉구하는 자성(自省)이 없다는 점에서 군주제 사회의 관념적이고 교조적인 한계를 다분히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재일본장가(在日本長歌)」는 백수희가 포로(1592년)가 되어 일본에 잡혔다가 귀국(1600년)하기까지 9년 동안의 심정을 담은 것으로, 해동이역(海東異域)에서의 서러운 삶과 고국을 그리고 절개를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입몽(入夢)-몽유(夢遊)-각몽(覺夢)’이라는 짧은 서사 속에 부모의 은덕을 갚고 형제들과 우애를 나누지 못한 세월에 대한 자책, 포로로서의 불안 초조를

89) 『선조실록』권49, 선조 27년(1594) 3월 20일.

90) 李肯翊, 『燃藜室記述』卷15, 宣祖朝 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그러낸 것이 특징적이다. 내적 욕망을 표출하는 가운데 있는 현실과 있어야 할 현실의 거리를 넓힘으로써 비애를 자아내고 있다.

「선상탄」은 정유재란 직후에 부산의 통주사로 부임하여 느낀 전쟁 비애와 평화 기원을 노래했다. “느느 듯한 판옥선(板屋船)을 주야(晝夜)의 빗기 타고/임풍영월(臨風詠月) 호더 흥(興)이 전혀 업는게오”라 한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다. 배를 타고 풍류를 즐기고 싶은 ‘이상’(있어야 할 현실)과 배 안에 대검장창(大劒長槍)을 싣고 있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슬픔을 자아낸다. 전쟁 상황에서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은 셈이다. “장한강동(張翰江東)애⁹¹⁾ 추풍(秋風)을 만나신들/편주(扁舟) 곳 아니 타면/천청해활(天淸海濶)하다 어니 흥이 절로 나며”, “석일(昔日) 주중(舟中)에는 배반낭자(杯盤狼藉)⁹²⁾터니”에도 일상에 대한 그리움을 그렸다. 전쟁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전선을 지키고 있자니 강 위의 맑은 바람과 산 위의 밝은 달을 즐기던 일상이 그리웠을 것이다. 「선상탄」은 태평한 시대에 배를 타고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이상, 어지러이 술상을 벌리던 지난날의 소박한 일상까지도 그리움으로 남아 전쟁의 피폐함을 실감케 하고 있다.

91) 장한(張翰)은 서진(西晉)의 문학가로, 글재주가 빼어났으나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엽매이기를 싫어하여 ‘강동보병(江東步兵)’이라 불렸다. 진(晉) 혜제(惠帝) 때 벼슬을 받았으나 “무릇 세상에서 명예를 가진 자는 나아가고 물러남이 진실로 어려운데 나는 본디 자연 속의 사람이라 시절에 바라는 바가 없도다.” 하며 물러난 일화로 유명하다.([晉書]卷92, 列傳62, 文苑 張翰).

92) “손님들이 기뻐 웃으며 잔을 씻어 또 따랐는데 고기 과일 안주는 다 떨어지고 술상은 어지럽다네. 배 안에서 서로 포개져 잠이 드니 날이 새서 해가 뜨는 것도 알지 못하네.”(蘇軾, 前赤壁賦)를 인용하였다.

IV. 나오기

임란기 부산지역 전란가사는 감도는 전운(戰雲)과 전란의 참상, 내재된 근심과 회한, 분노와 울분, 위기에 더욱 빛나는 절개와 충정, 강한 결의와 불타는 전의(戰意), 고향과 태평시절에 대한 그리움 등을 주제를 그렸다. 이 가운데 궁극적으로 꿈꾸는 이상세계는 전쟁 없는 태평한 사회의 실현, 평화로운 일상의 회복, 나아가 인간의 도덕과 윤리 구현이다. “성은이 기픈 아리 오류를 발켜스라~”(「태평사」), “부모의 은덕과 형제의 우애를/못다 갚흔 잔구(殘軀)로다”(「재일본장가」), “태평천하에 요순군민(堯舜君民) 되야~”(「선상탄」), 에 내포적 주제가 잘 나타나 있다. 「태평사」는 전쟁의 발발, 치열한 전투, 전쟁 종식 후 태평을 되찾기까지의 과정을 노래하고, 「재일본장가」는 전쟁 포로의 탄식과 절망, 굶은 절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다. 「선상탄」은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전운이 감도는 전선(戰船)에서 가지는 탄식과 분노, 설원(雪冤)의 다짐, 평화 기원을 담고 있다. 「태평사」는 처참한 패전 이후 전세를 가다듬어 승전하는 치열한 전쟁 상황을 담고 있는데 반해, 「선상탄」은 전쟁에 대한 탄식, 우국충정과 적을 위압하려는 기개가 두드러진다. 「재일본장가」에는 부모 형제를 떠나 기한(飢寒)과 병마에 시달리는 체념과 절망을 그렸다.

「태평사」는 전쟁 상황 묘사가 잘 담겨 있어 「남정가」와 함께 전란가사의 전형이다. 하지만 칼과 화살을 맞은 시신들, 망보는 군사와 병화(兵火)를 그린 「남정가」처럼⁹³⁾ 전투 장면을 치밀하게

93) “칼 맞거니 살 맞거니 침시편야(枕屍遍野)ᄃᆞ니/어엿썰샤 남민(南民)이야 적세승승(賊勢乘勝)ᄃᆞ야/십성(十城)을 연합(連陷)ᄃᆞ니/봉봉(峯峯)이 후망(候望)이오 골골이 병화(兵火)로다”, “금고쟁격(金鼓爭擊)ᄃᆞ니 승기진성(勝氣填城)이오/맹사비양(猛士飛揚)ᄃᆞ야 집신희추(執訊獲醜)로다/정기(旌旗)을 보

묘사하진 않았다. 이에 “한국가사에서 진정한 의미의 전쟁가사란 별로 없다. 전투 장면의 묘사보다는 적을 물리친 장졸의 장한 기개가 더욱 부각되고 있어 장부호기의 가사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⁹⁴⁾는 견해도 있지만, 「태평사」 「재일본장가」 「선상탄」 등은 「남정가(南征歌)」, 최현(崔暉)의 「용사음(龍蛇吟)」 「명월음(明月吟)」, 채득기(蔡得沂)의 「봉산곡(鳳山曲)」 등의 작품과 함께 분명한 전란가사로서의 존립 근거를 가진다. 이들 전란가사는 ‘전쟁’이라는 현실 소재를 바탕으로 전쟁에서 겪는 고통과 참화, 사회의 피해상, 침략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태평한 세월 속에서 부모 형제와 함께 조상제사를 모시며 예의와 윤리를 구현하는 일상적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운다.

【참고문헌】

- 『晉書』 『太平御覽』 『論衡』 『資治通鑑』 『宋史』 『詩經』 『史記』 『後漢書』 『孟子』
- 『燃藜室記述』 『조선왕조실록』 『亂中雜錄』 『大東野乘』 『壬亂日記』 『懲毖錄』 『錦溪集』 『松潭先生遺事』 『看羊錄』 『文山集』 『南冥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蘆溪集』 『增補文獻備考』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 國防軍史研究所, 1996, 『韓民族戰爭通史』Ⅲ -朝鮮時代 前篇
- 고순희, 1996, 「임란 이후 17세기 우국가사의 전개와 성격」, 『韓國古典研究』2, 韓國古典研究學會, 122~152쪽.
- 具壽榮, 1986, 蘆溪 박인로의 시가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와 흥니 들니니 적수(賊首) | 오/동성(東城) 도라보니 빠히니 적시(賊屍)로다”

94) 徐元燮, 1995, 앞의 책, 232쪽.

- 宮崎市定 著, 曹秉漢 譯, 1983, 『中國史』, 역민사,
- 金東旭, 1980, 『韓國歌謠의 研究』, 二友出版社.
- 김강식, 1998, 조선전기의 대일교섭과 임진왜란, 『부산의 역사와 문화』, 부산대학교출판부.
- 朴晟義, 1966, 『松江 蘆溪 孤山의 詩歌文學』, 현암사.
- 徐元燮, 1995, 『韓國歌辭의 文學的 研究』, 螢雪出版社.
- 요네타니 히토시(米谷均), 2007, 사로잡힌 조선인들 -전후 조선인 포로 송환에 대하여 ;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센터 기획 정두희·이경순 편,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 李相寶, 1973, 「楊士俊의 南征歌 新攷」, 『국어국문학』62·63, 국어국문학회, 1~16쪽
- 李相寶, 1978, 『蘆溪詩歌 研究』, 二友出版社.
- 李相寶, 1979, 『韓國歌辭選集』, 集文堂.
- 李元淳, 1985, 「壬辰·丁酉倭亂時의 朝鮮俘虜奴問題」,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三英社.
- 李鍾文, 2008, 「蘆溪 朴仁老 文學의 創作 空間과 遺蹟 關聯 몇 가지 摸索」, 『大東漢文學』29, 大東漢文學會, 179~216쪽.
- 李炯錫, 1976, 『壬辰戰亂史』上中下,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 임기중, 2005, 『한국가사문학 주해연구』4, 아세아문화사,
- 장미경, 2003, 「壬亂 被虜者의 捕虜體驗 漢詩 研究 -鄭希得을 중심으로」, 『漢文教育研究』20, 韓國漢文教育學會, 267~296쪽.
- 鄭在鎬, 1982, 『韓國歌辭文學論』, 集文堂.,
- 정재호, 1992, 임진왜란과 국문시가,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 정재호, 1977, 「박인로론」 『한국문학작가론』Ⅰ, 형설출판사.
- 최상은, 2002, 「蘆溪歌辭의 창작 기반과 문학적 지향」, 『韓國詩歌研究』11, 韓國詩歌學會, 255~278쪽.
- 崔永禧, 1995, 왜란 전의 정세, 『한국사』29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국사편찬위원회,

- 최 웅, 1992, 船上嘆 연구,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 허유영, 왕핑, 제갈량 편집팀, 2007, 『제갈량 문화유산 답사기 - 사진으로 읽는 제갈량사』, 에버리치 홀딩스.
- 黃忠基, 1994, 『蘆溪 朴仁老 研究』, 國學資料院.

투고일	심사일	심사완료일
2009. 10. 31	2009. 12. 7 ~ 9	2009. 12. 15

【국문초록】

「태평사(太平詞)」(박인로 작), 「재일본장가(在日本長歌)」(백수회 작), 「선상탄(船上嘆)」(박인로 작)은 임진왜란 시기 부산지역 전쟁 가사로, 전란가사의 세 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태평사」는 전쟁의 발발, 치열한 전투, 전쟁 종식 후 태평을 되찾기까지의 과정을 노래하고, 「재일본장가」는 전쟁 포로의 탄식과 절망, 굶은 절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다. 「선상탄(船上嘆)」은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전운이 감도는 전선(戰船)에서 가지는 탄식과 분노, 설원(雪冤)의 다짐, 평화 기원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태평사」만 명종(明宗) 조의 「남정가(南征歌)」와 같이 (1)전쟁 이전의 태평세월 (2)전쟁의 발발 (3)치열한 전쟁 상황(패전과 승전) (4)평정 회복, 태평세월 지속 기원이라는 전란가사의 전형적 흐름을 취하고 있으나 이들 작품은 다양한 시점, 시각에서 전쟁의 일 단면을 담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구조를 취한 「태평사」도 태평한 세월에 나태해지고 소모적인 당쟁을 일삼던 무능한 조정과 지배층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고 성은에 대해 의례적으로 감사하며 윤리를 강조하는 한계를 지니긴 하지만, 부산지역을 근거로 한 전란 체험을 담은 이들 전란

가사는 ‘전쟁’이라는 현실 소재를 바탕으로 전쟁으로 겪는 고통과 참화(慘禍), 사회의 피해상, 침략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태평한 세월 속에서 부모 형제와 함께 조상제사를 모시며 예의와 윤리를 구현하는 일상적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운다는 점에서 장부의 호기(豪氣)를 담은 여타의 가사 작품과는 다른 범주 설정이 필요하다.

이들 작품은 양사준(楊士俊)의 「남정가(南征歌)」, 최현(崔峴)의 「용사음(龍蛇吟)」, 「명월음(明月吟)」, 채득기(蔡得沂)의 「봉산곡(鳳山曲)」 등과 함께 전란가사로서의 존립 근거를 분명히 가진다. 부산지역 전란가사는 1)감도는 전운(戰雲)과 전란의 참상 2)내재된 근심과 회한, 분노와 울분 3)위기에 더욱 빛나는 절개와 충정 4)강한 결의(決意)와 불타는 전의(戰意) 5)고향과 태평시절에 대한 그리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주제어 : 전란가사, 태평기원, 탄식, 적개심, 설원(雪冤), 부산 앞바다의 평화, 울산 병영, 예의 윤리, 일상의 소중함, 전운(戰雲), 위기에 빛나는 절개·절의

【Abstract】

The study about the meaning of Old Korean War Verses in Busan during Japanese Invasion.

Hwang, Byeong-ik / Kyungsung Univ. korea literature

「Taepyeongsa」(a work of In-ro Bak), 「Jaeilbonjangga」(Su-hae

Baek) and 「Seonsangtan」(In-ro Bak) are old Korean War Verses in Busan during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which show three types of an old Korea War Verse 「Taepyeongsa」 is singing the outbreak of war, fierce battle and the process of recovering peace. 「Jaeboljangga」 is singing the sign and despair of prisoners of war, strong honor and yearning for hometown. The lamentation and anger hovering battle line despite the end of war, the promise of exoneration and the prayer for peace are put into 「Seonsangtan」. Among them, only 「Taepyeongsa」 which is similar to 「Namjeongga」 under Myeongjong's reign has the typical flowing of old Korean War Verses whose contents are (1) peaceful times before war (2) outbreak of war (3) fierce situations of war a defeat and victory (4) serenity recovery and maintenance of peaceful times but these works describe one section of war from various points of time and view.

「Taepyeongsa」 which has the most typical structure doesn't have any self-reflection on the inefficient Royal court and ruling class being idle and engaged in exhaustive party strife, appreciates Royal favor formally and has limit of emphasizing ethics. But these old Korean War Verses which put the experiences of disturbances of war based on Busan in need other category-settings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works which have mainly men's heroic temper in that they reveal the pain and calamity of war, the impoverishment of society and hostility against invaders based on realistic subject matter of war and they make people aware of how valuable everyday life performing a religious service and embodying manners and ethics with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in peaceful times is.

These works have obvious existence base as old Korean War Verses with Sa-jun Yang's 「Namjeongga」, Hyeon Choi's 「Yongsaeum」 and 「Myeongweoleum」 and Deuk-gi Chae's 「Bongsankok」. Old Korean War Verses include 1) lingering war clouds and terrible sight of the disturbances of war 2) immanent anxiety and remorse, anger and pent-up rage 3) fidelity and true feeling shining brilliantly in a critical moment 4) strong determination and burning intention to fight and 5) yearning for hometown and peaceful times.

Key words : an old Korean War Verses, prayer for peace lamentation, hostility, exoneration, peace of Busan open sea, Ulsan Barracks, manners and ethics, significance of everyday life, war clouds, fidelity shining brilliantly in a critical moment & fidelity to principle